

- 주요 뉴스: 미국 2월 소비자지출, 소득증가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큰 폭 둔화
 - 미국, 유가안정을 위해 6개월간 매일 100만배럴 전략비축유 방출. 사상 최대 규모
 - 러시아, 자국산 가스 대금의 루블화 결제를 요구. 실질적으로는 유로화 결제 가능
 - ECB 부총재, 상반기 역내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부진할 전망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1.6%], 달러화 강세[+0.6%], 금리 하락[-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성장둔화 가능성 등으로 투자심리 약화
유로 Stoxx600지수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0.9%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매수 증가
유로화가치는 0.8% 하락, 엔화는 0.1%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분기 말 포트폴리오 조정 등이 반영
독일은 저가매수 유입 등이 배경. 다만 월간 기준 상승폭은 '09년 이후 최대

※ 원/달러 1M NDF환율(1215.2원, +2.4원) 0.2% 상승, 한국 CDS 상승

		3/31일	3/30일	전일대비			3/31일	3/3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530.4	4,602.5	-1.57%	국채 금리 10y	미국	2.34%	2.35%	-1bp
	유럽	455.86	460.19	-0.94%		독일	0.55%	0.65%	-10bp
	중국	3,252.2	3,266.6	-0.44%	CDS 5y	한국	29bp	28bp	1bp
	일본	27,821	28,027	-0.73%		중국	61bp	59bp	2bp
	한국	2,757.7	2,746.7	0.40%	위험 지표	EMBI+	-	515	-
환율	달러지수	98.35	97.79	0.57%		VIX	20.56	19.33	6.36%
	유로화	1.1067	1.1159	-0.82%		WTI유	100.28	107.82	-6.99%
	엔화	121.70	121.83	0.11%	원자재	구리	475.1	475.1	0.01%
	위안화	6.3400	6.3477	0.12%		금	1,937.4	1,932.9	0.24%
	원화	1,212.1	1,209.6	-0.2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2월 소비자지출, 소득증가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큰 폭 둔화

- 2월 소비자지출의 전월비 증가율이 0.2%를 기록하여 전월(2.7%) 및 예상치(0.5%)를 모두 하회. 반면 같은 달 가계소득은 고용여건 개선이 지속되면서 전월비 0.5% 늘어 1월(0.1%)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확인
- 소득증가에도 소비가 둔화된 것은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느려졌지만, 인플레이션 심화로 소비심리가 냉각되었기 때문. 항목별로는 자동차 등 가격이 크게 상승한 제조업 상품의 소비가 감소한 반면, 오미크론 우려 완화로 서비스 관련 소비는 개선
- Bank of America의 Alex Lin은 경제 전망이 과거와 같은 장밋빛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소비자지출의 둔화가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PNC Financial은 당분간 고물가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
- 실제로 이날 발표된 2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전년동월비 6.4% 올라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근원 PCE 물가의 연간 상승률도 5.4%로 전월 대비 상승. 이러한 고물가 상황은 통화긴축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초래
- 다만 일부에서는 높은 수준의 가계저축과 양호한 고용여건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 추세가 인플레이션 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 Wells Fargo의 Shannon Seery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여파를 일부 흡수할 것으로 분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유가안정을 위해 6개월간 매일 100만배럴 전략비축유 방출. 사상 최대 규모

-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가 상승세가 제어되기를 기대. 또한 유가 억제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유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 한편 OPEC+는 당초 계획(일일 43.2만배럴 증산)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증산하기로 결정

■ 골드만삭스, 미국 1/4분기 기업실적은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

- David Kostin은 금리상승, 코로나 19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다수 기업의 1/4분기 매출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분석. 아울러 S&P500 지수는 연말에 4700을 기록하여 최근 지수 대비 2% 높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러시아, 자국산 가스 대금의 루블화 결제를 요구. 실질적으로는 유로화 결제 가능

- 푸틴 대통령은 비우호국이 자국산 가스 구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해야하는 대통령령에 서명. 다만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지정된 러시아 은행에 외화로 송금하여 이를 루블화로 환전하여 결제하는 방식도 허용
- 한편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 이에 따르면 반도체 등 하이테크 산업 부문의 기업 21개와 13명의 개인을 추가 제재 명단에 포함. 엘런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시까지 러시아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

■ ECB 부총재, 상반기 역대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부진할 전망

- 데 쿼도스 부총재는 1/4분기에는 소폭의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고, 2/4분기에는 제로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에너지 가격 급등이 역대 가계의 구매력 약화 및 기업의 투자신뢰 저하 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
-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역대 연간 인플레이션이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관측. 한편 엔리아 은행감독위원장은 러시아 제재에 따른 영향이 은행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제 전망도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

■ 중국 3월 제조업 PMI, 49.5를 기록하며 확장과 위축의 기준인 50을 하회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전월(50.2) 및 예상치(49.9)를 하회했으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봉쇄 강화 등에 기인. 블룸버그의 Chang Shu는 제조업 PMI가 4월에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3/31 현지시각 기준)

- 미국 3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만건): 20.2, 전주(21.2), 예상치(-)
- 미국 3월 시카고 PMI: 62.9, 2월(56.3), 예상치(57)
- 중국 3월 국가통계국 서비스 PMI: 48.4, 2월(51.6), 예상치(53.2)

■ 주요 경제 이벤트(4/1 현지시각 기준)

- 미국 3월 고용보고서, 3월 ISM 제조업경기지수
- 유로존 3월 소비자물가, 중국 3월 차이신 제조업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휘발유 가격 상승, 고물가 장기화로 연결될 가능성 - WSI

(Inflation Could Create a Sticky Situation)

- 2월 PCE 물가(연간 6.4%)는 휘발유 가격 상승 등으로 40년 만에 최고치. 과거 연료비는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플레이션 추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 그러나 2월에는 물가 전반에 미치는 휘발유 가격 상승의 영향 확대로 근원 PCE 물가도 큰 폭 상승
- 3월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월 대비 올라 3월 PCE 물가는 다시 한 번 상승할 전망. 정책입안자들은 전체 물가보다 음식과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과 같이 에너지 가격 상승이 클 경우 주의가 필요

■ 신흥국 투자, 전쟁 및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관련 위험이 확대 - Financial Times

(Emerging markets — where to put your money with Russia at war)

- 신흥국 시장은 호황기에 투자자에게 뛰어난 성장 동력을 제공. 하지만 정치적 여건 등의 전환 국면에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소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1998년 러시아 디폴트 및 중국 해외투자자 규제 정책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을 상기
- 한편,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큰 영향력과 선진국 대비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시장은 매력적으로 보일 가능성. 하지만 투자자들은 다양한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한 여타 신흥국으로의 자산 배분이 필요

■ 미국의 원유시장 수급 불균형 개선 노력, OPEC+와의 공조가 관건 - 블룸버그

(America's Oil Reserve Weapon Risks Misfiring)

■ 미국의 인플레이션 심화, 연준 비둘기파의 활동 자제로 연결 - 로이터

(As Fed trains sights on inflation, doves fade from view)

■ ECB, 고물가저성장의 동시 극복을 위해 소폭의 예금금리 인상 필요 - 블룸버그

(Zero Is a Good Destination for ECB Interest Rates)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